9년만에 복원된 서아시아 최대 불상 조각

2007년 9월 탈레반 공격에 얼굴 부분 크게 훼손

2007년 9월 탈레반 공격을 받아 훼손된 서아시아 최대 불상 조각이 인고의 복원 작업 끝에 제 모습을 찾았다.

파키스탄 언론 'DAWN'은 11월 8일(현지시간) "스왓 계곡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이 9년을 기다린 끝에 얼굴을 되찾았다"며 "이번 작업엔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투입돼 과학적 복원 방법을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스왓 계곡의 한 바위에 조각된 이 불상은 서아시아 최대 크기로 알려진다. 7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처님이 앉은 채 명상에 잠긴 모습을 표현했다. 탈레반은 폭발 당시 부처님 얼굴과 어깨 부분에 구멍을 뚫어 폭발물을 설치, 얼굴의 반 이상이 훼손됐다.

이에 대해 'DAWN'은 "폭발로 인해 부처님 얼굴의 대부분이 망가졌지만, 어깨 쪽은 폭발에 실패했다"며 "탈레반의 당시 범행은 전 세계 불자들과 역사가들, 고고학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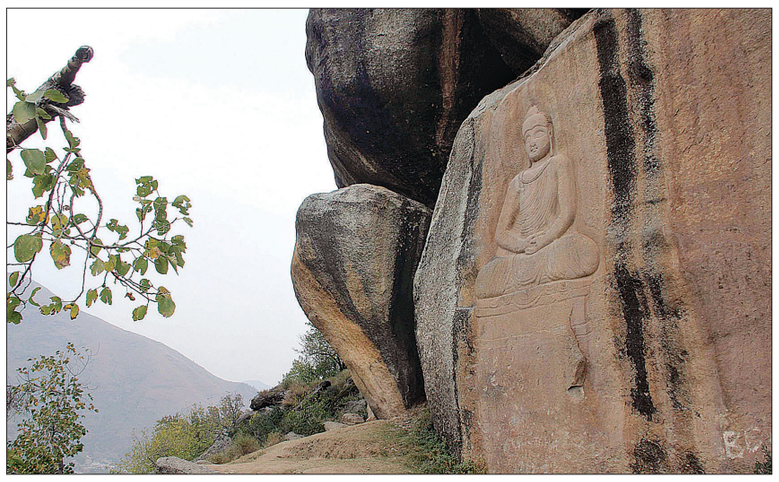
이후 파키스탄은 불상 복원 작업에 착수,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파견돼 6차례에 걸친 과학적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3D 기술이 활용돼 원형 모습을 되찾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단 후문이다. 3D 장비는 모두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서 지원했다.

루카 마리아 올리비에리 고고학 파견단장은 "국제 전문가들이 합심해 복원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원한 고고학 지역관광(ACT) 야외활동 프로젝트 단체를 중심으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 박물관 관계자 및 이탈리아 고고학단이 합류했다"며 해외 및 지역 복원 전문가 7명, 3D 스캔 전문가 2명, 총책임자 1명, 현장 담당자 20명, 목수 2명, 관리인 3명 등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고고학단 파견돼
6차례 걸친 조사 실시 후
3D 등 과학 기술 도입 작업
"과거 관광지 명성 되찾길"

특히 이번 복원 작업에 참여한 파비오 콜롬보 씨는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불상 복원 작업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콜롬보 씨는 "스왓 계곡은 과거 불교 중심지로, 이 불상 역시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역 주민들 및 전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며 "불상 조각은 매우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풍겨 한 폭의 그림과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현지 고고학 전문가 시에드 니아즈 샤이아 씨는 "이탈리아 내 최고 기술자들이 합류해 복원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스왓 계곡이 다시 관광지로 번성하길 바란다. 불자 및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해 풍경과 문화재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아시아 최대 크기로 알려진 스왓 계곡 불상. 2007년 탈레반 공격 후 최근 복원됐다.
사진출처=DAWN

'DAWN'이 복원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이날은 복원 후 첫 관광객들이 방문한 날이기도 했다. 러시아 관광객들은 복원된 불상 조각과 경치를 감상하며 환희에 젖었다.

유리 조르노 씨는 "불상은 역사적 가치 뿐 아니라 정교한 복원 기술로만으로도 매우 놀랍다. 멀리서 보이는 불상과 계곡의 조화가 너무도 아름답다"며 "더 이상 테러 위협이 없는 이곳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관광객은 "이곳 치안은 매우 훌륭하다.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줘 매우 안전하다"며 "파키스탄은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문화유적을 갖췄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곳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불상 조각이 위치한 스왓 계곡은 급류와 호수, 과수원, 꽃이 만발한 비탈길이 조화를 이룬 절경을 자랑해 '파키스탄의 스위스'라 불린다. 과거 1,400개가 넘는 사원이 번창해 불교 전성지대기도 했으며, 불교의 전통 조각술과 그리스 · 로마의 스타일이 혼합돼 표현된 간다라 조각술의 중심지였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삶의 마지막 안온처 준비하는 일본불교

혼고지구 정심사 3층 규모 장례식장 '사쿠라 홀' 건설

이미 초고령자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앞으로 다가올 '다사사회(多死社會)'를 맞아 정부와 관련기업들의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다사사회란 현재의 고령자들이 사망에 임박한 연령에 도달하여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로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일본은 이 시기를 2038년 즈음으로 예측한다.

일본 불교계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 비즈니스(日経ビジネス)는 11월 4일자 기사를 통해 다사사회를 대비하고 있는 일본불교계의 움직임을 취재했다.

도쿄도(東京都) 분교구(文京區) 혼고지구(本郷地區)는 사찰 50여개가 모여 이루어진 마을이다. 이곳 절들 중 정토종(淨土宗) 소속의 정심사(淨心寺)는 최근 사찰 부지에 3층 건물의 장례식장 '사쿠라 홀'을 건설했다. 장례식장 지하에는 시신 8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소가 마련돼 있다. 시신은 대부분 근처 노인요양원서 숨을 거둔 고령자이거나 마을 주민들이지만 고독사(孤獨死)한 신원미상의 시신도 안치되는 등 종교와 관련성은 특별히 없다.

정심사 주지 스님 사토 마사히코(佐藤雅彦 · 58)는 "이곳 분교구(文京區)엔 화장장이 없고 안치소도 모자라다. 머무를 곳 없는 망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 우리 절이 망자의 마지막을 편히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설립 이유를 밝혔다.


정심사의 사쿠라 홀. 주변 건물들과 위화감이 없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외관에 많은 신경을 썼다.

일본은 이미 상업적으로 규모가 큰 상조회사가 많고, 대규모 안치소와 화장장을 구비하거나 증설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어디까지나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보니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화장장과 시신안치소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강해 설립이 쉽지 않다고 한다.

예부터 일본 사회의 상례(喪禮)를 담당해 온 일본 불교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 정심사와 같이 소규모 장례식장 및 시신안치소를 사찰 부지 안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고 있다. 특히 혐오시설이란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 디자인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하지만 이면에는 일본불교계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다. 최근 아무런 종교의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 사찰에서 행해지는 상례의식이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이다.

점차 상례를 치르지 않는 사회가 돼가는 일본서 시신안치소가 과연 불교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성원 객원기자

"개인적 문제, 불교적 해법 통해 해소시킬 것"

美위스콘신주, 일반인 위한 명상센터 열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명상센터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담파 명상센터 메디슨은 미국 위스콘신주 파크 애비뉴에 명상센터를 열고, 위스콘신 주립대 학생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에게 명상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명상센터 지도 법사인 겐 켈상 곰람은 "이전엔 승려들과 소수의 일반인들에게만 불교 가르침을 전했지만 스승인 게쉐 켈상 갸초는 일반 대중에게 현대불교를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갸초 스님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현대적 시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곰람 스님은 "우리는 사람들을 불자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불교적인 해법을 통해 제시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대불교는 불자, 비(非)불자 모두에게 명상을 통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이 명쾌하고 쉽다"며 "행복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감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하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곰람은 "우리 모두의 내면은 평화롭다.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분주함, 외부의 상황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카담파 명상센터 메디슨은 위스콘신대학 내에 있는 '다이아몬드 웨이 불교센터'에서 분리된 기관으로, 교육 방법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카담파 명상센터 메디슨이 미국 위스콘신주 파크 애비뉴에 연 명상센터.
사진출처=the badger herald

위스콘신대 대학원생이자 위스콘신대학내 다이아몬드웨이 불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몰리 고사지는 명상이 가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고사지는 "대학교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이익 때문에 모든 유형의 명상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명상이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비록 불교 교리 외에 다른 형태의 명상이 있지만, 고사지는 그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고사지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써 명상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고사지는 "이것은 단지 여러분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감정을 변형 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담파 명상센터는 이번 설립을 계기로 바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곰람 스님은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료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장이나 망가진 차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태도를 만든다"고 말했다.

카담파 명상센터와 다이아몬드 웨이 불교센터는 명상 초보자에서 고급자까지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보형 객원기자

유명 작곡가 매일 염불, "무대공포증 사라져"

던컨 쉭, 美 팟캐스트 방송 인터뷰서

브로드웨이 히트 작곡가가 무대 공포증을 떨치기 위해 19살 때부터 염불 수행을 해왔다고 밝혀 화제다.

미국 방송국 'abc News'는 11월 2일(현지시간) 자회사 팟캐스트 방송 '10% happier'서 8개 토니상 수상작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작곡가 던컨 쉭〈사진〉을 인터뷰하고, 그가 불교 염불 수행을 통해 무대 공포증을 극복했다고 방송했다.

이날 던컨 쉭은 "10대 시절 알게 된 불교 염불 수행을 실천한 후부터 불안이 사라졌다"며 "특히 한 음으로 염불을 계속 외면서 음감을 터득했고, 다양한 음으로 노래하는 방법도 익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염불을 외면 발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던컨은 불교적 가치관을 작품에 반영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불교는 인간이라면 겪어야 할 10가지 삶의 단계를 말해준다. '스프링 어웨이크닝'은 주인공들이 다양한 삶의 단계를 살면서 이에 각자 반응한단 줄거리"라며 "작곡을 하면서 내가 사회에 어떤 유익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희 기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S8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3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